

전남 '국가 레이저산업' 거점 밀그림 그린다

도·나주시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가 에너지도시 나주시와 함께 국가 레이저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밀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정철실에서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나주시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나주혁신도시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할 방안과 국내 유일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실행 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용역 과정에선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레이저 부품 국산화 품목'을 발굴하게 된다.

또 산업부가 주관하는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대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전남도가 레이저산업 국가 핵심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용역 과정에는 레이저산업을 활용한 전남 권역별 전략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권역별로 나주는 레이저종합클러스터, 동부권은 우주·항공·신소재·철강산업, 북부권은 장비·소재·부품 산업, 중부권은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별 차세대 산업과 레이저산업 간 시너지를 얻기 위한 전략을 발굴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레이저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선도기업 등 레이저 기업 20개사 유치, 고용 5000여명 창출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총생산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한민국을 이끌 히든카드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와 함께 연구시설을 핵심으로 한 산업이 형성돼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형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 밀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 기자

고려시멘트, 경영 악화로 장성 공장 폐쇄

업계 "호남 기반 탄탄한 업체...폐쇄 충격"

고려시멘트가 경영난을 이유로 장성에 위치한 생산공장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2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성공장 폐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체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경영 상태는 계속 악화되면서다. 고려시멘트는 지난해 매출액 699억원, 영업이익은 126억원의 적자를 봤다.

고려시멘트 측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환경 규제가 덜한 고로슬래그시멘트 생산공장을 전남 영암에 준공해 종업원의 고용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고려시멘트의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과거 협회 회원사였고 호남을 주요 시

장으로 시멘트를 판매해 온 탄탄한 업체여서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장이 폐쇄돼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업계에서도 이번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의 폐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멘트업계는 고려시멘트의 상황이 최근 일본 시멘트업계에서 발생한 공장 가동 중단 사례와 유사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시장 점유율 약 24%를 차지하는 업계 2위의 우베미쓰시멘트가 원가 부담과 경영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오모리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장성=심재식 기자

국가 레이저산업 거점 밀그림	2면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3면
3분기 전기요금 동결	4면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총회에 앞서 김영록 지사, 강기정 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한다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석차 9등급제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역인재 '20%' 의무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지난 정부에서 밝힌 대로 고1 공통과목에는 상대평가인 9등급 석차를 함께 표기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 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이들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 사교육 영향평가를 재지정(운영성과) 평가, 모집정원 감축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의 골자 대로 공통과목의 내신은 성취도(A-E)와 석차등급을 함께 표기한다.

▲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에 해당하며, "한국사"와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인 성취평가제로 석차등급이 표시되지 않는다. 성취평가제는 서열을 매기지 않고 성취도를 A·B·C·D·

E 5단계로 산출한다.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내신 전 과목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뜻을 밝혔지만 무산된 셈이다.

당초 교육부는 전면 절대평가 전환과 현행 석차 9등급제 병기 뿐만 아니라, 2028년부터 석차 5등급제 병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전면 절대평가 전환이나 석차등급 완화는 고교 내신이 대입 전형자료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일단은 교육계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미뤄두자, 대신 학교의 성취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

을 두고 노력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 성취율 40%, 과목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된다. 대학교의 'F', 이른바 낙제에 해당하는 'I' 등급이 도입된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예방·보충지도와 대체이수제를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취평가제 내신의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교-시도교육청-외부 점검단 '3단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별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한다.

지난해 예고된 대로 자사고와 외국, 국제고는 존치한다.

/조선주 기자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